

Venture 즐겨찾기

기업 속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중소.. 기업.. 진흥.. 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청이 마련한 중소·벤처기업관련 지원정책을 실질적으로 집행·추진하는 곳으로, 정책자금지원과 판로개척 등을 통해 2만불 시대를 열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현장의 문제점을 발굴·지원하는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거는 기대가 크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벤처지원업무와 2005년 중점사업을 정리해보았다.

> > > >
www.sbc.or.kr

중

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는 크게 자금지원, 벤처창업지원, 수출지원, 구조고도화사업, 컨설팅 및 연수사업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기술력과 사업성을 갖춘 예비창업자를 발굴·지원해 산업발전 및 고용 창출을 도모하고, 연수와 컨설팅을 통해 이들을 적극 육성한다. 또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컨설팅과 진출경비 지원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기업의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돕고 있다. 따라서 초기·성장 벤처기업을 막론하고 경영일변의 총체적인 애로사항에 대해 폭넓은 지원을 하는 곳이 바로 이곳 중진공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올해 중진공은 중소·벤처기업의 재도약 없이는 우리 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탈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우리 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인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해 여러 가지 서비스를 준비중이다. 그 중 중소·벤처기업의 경영 현장을 직접 찾아가 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지원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벤처넷

<http://global.smba.go.kr>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제도, 해외진출 가이드, 현지법인설립절차, 수출입절차 등 벤처경영과 해외진출과 관련된 전문정보를 이곳에서 얻을 수 있다. 또 현지 원자재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어 경제동향을 보다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해외진출 커뮤니티를 통해 관심 국가 또는 업종 단위로 공통의 관심사를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벤처기업 경영 및 해외진출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제공하고 있어 정보수집에 따른 인적·시간적 경제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중소기업정보은행

<http://www.digitalsme.com>

중진공에서 운영하는 종합정보제공 사이트로 자금, 기술, 인력, 판로, 입지, 세제 등 정부 및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각종 지원정보 및 중소기업뉴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중진공이 보유한 8만 여 중소기업 정보를 텍스트 및 전자지도 상에서 열람할 수 있다. 창업 지원정보, 창업가이드, 창업 절차 안내 등의 창업 관련 정보를 비롯하여, IT 솔루션 및 도입 가이드 등의 중소기업 정보에 관한 일련의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제고사업인 “구조고도화사업” 본격 추진

중진공은 중소기업의 구조고도화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여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구조고도화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의 경영기법, 마케팅, 생산공정 등의 문제점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전문 컨설턴트들을 생산현장에 투입, 업체의 문제점을 끄집어내 기술, 생산설비, 인력분야 등 제반 생산자원을 효율화시키는 방안을 도출, 현장에 적용시켜준다. 아울러 자금, 제품개발, 종업원 연수, 마케팅, 신기술 지원, 정보화구축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제반 서비스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구조고도화사업은 개별기업에 대한 종합진단을 통해 현재 기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각종 지원시책을 맞춤 연계지원하여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이다.

설비투자 촉진 및 창업 활성화

2005년 중점추진사업으로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고, 벤처창업 인프라를 조성하여 창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올 한해 총 3조원에 이르는 정책자금을 적시에 공급할 계획이다. 그 중 설비투자, 중고설비구입,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을 지원하는 ‘구조개선자금’과 수출계약에서부터 선적에 이르기까지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자금 등을 지원하는 ‘수출금융 지원자금’, 작년대비 600억원이 증액된 ‘협동화자금’에 대한 신청 및 접수를 할 수 있다. 또, 중진공의 직접대출자금(약 1800억원)에 한하여 창업을 지원하는 ‘중소·벤처창업자금’, 중기청에서 시행하는 기술개발에 성공한 과제나 특허권 혹은 이전기술에 대해 제품화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개발 및 특허기술 사업화자금’의 신청을 받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27페이지 ‘2005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안내’ 참조)

수출 촉진, 해외협력 강화, 정보화 확충

중진공은 최근 침체에 빠진 중소기업의 판로확보와 국제경쟁력 강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위해 TV, 인터넷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제품홍보를 강화하고 수출인큐베이터 운영을 내실화해 인터넷 중소기업관(<http://eng.bestsmc.com>)을 세계적인 포털 사이트로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산업협력관 초청 제도를 대폭 확대하고, 해외협력 수요발굴을 위한 ‘Biz-Match Program’을 본격 가동하는 등 국제협력 업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미 해외벤처넷을 통해서도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실질적으로 돕고 있다. 또, 개성공단 개발 등 남북경협 사업도 적극 참여해 기업간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며 중소기업 정보은행을 확대 구축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인력 양성 및 지방연수원 본격 운영

금년에는 중소기업의 인재육성을 위해 연간 연수인원 5만명을 목표로 현장중심의 기술·품질연수를 강화하고, 기업현장 방문연수와 중국, 동남아 등 외국 공무원 초빙연수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 대기업과 공동으로 협력중소기업에 대해 공동연수를 실시하여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이공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 취업연계 연수사업도 확대할 것이다.

특히, 지방 중소기업의 편의도모와 신속한 산업연수를 위해 운영중인 광주연수원, 경산연수원, 진해연수원을 안산의 중소기업연수원과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자체, 지방대학 등과 협력하여 지역 중소기업, 대학생, 창업예비자 등에 대한 연수도 집중 시행한다.